

Thematic Radar

Ep. 19 단번에 반영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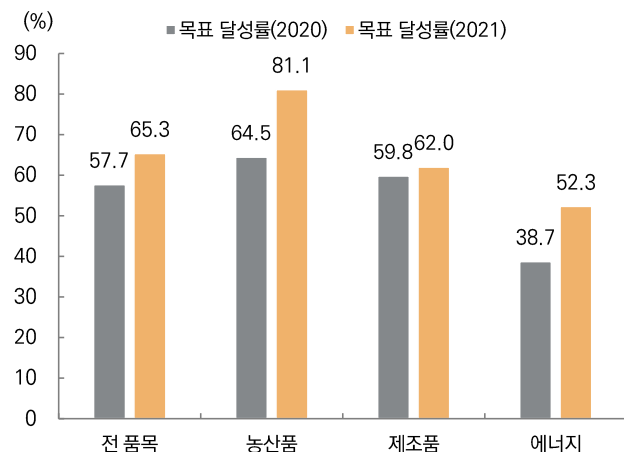
- 지난 주말 스위스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며 S&P500은 4월 낙폭 모두 회복
- 앞으로 양국간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 최종 합의에서도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 적을 가능성
-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불확실성 남아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도 잔존. 핵심 성장 테마 중심 접근 전략 유효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미국-중국간 무역협상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 나타났다. 향후 90일 동안 양국이 4월 중 부과한 상호관세 대부분이 유예됐다. 이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트럼프 1기에 부과됐던 20%, 펜타닐 20%, 상호관세 중 10%를 적용한 50%로 낮아지고, 중국은 기존 20%에 인상분 125% 중 10%만 적용한 3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스위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던 80%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전일 S&P500은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3% 이상 강하게 반등했다.

다만 아직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 놓을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가장 원했던 큰 폭의 관세율 인하가 단번에 발표되면서 향후 협상과 최종 합의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 최종 합의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순탄하다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협상 중 양국의 의견차가 부각되며 갈등이 재차 확대된 이력이 있고, 협상으로 2020년 초에 체결된 Phase 1 합의로 미국이 본 혜택도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2020~21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달성률은 60%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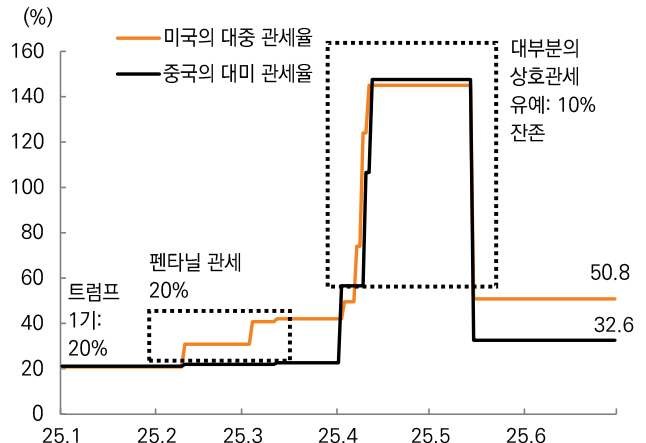
관세 관련 불확실성도 아직 잔존해 있다. 아직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철강, 자동차 등 섹터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고, 의약품과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이다. 기업을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는 의미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산 800달러 미만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120%에서 30%가 아닌 54%로 축소되는데 그쳤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이다. 해당 물품들은 최소 면세 제도(de-minimis) 조항에 의거해 4월 이전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실제로 Shein, Temu 등 중국 할인 플랫폼은 해당 관세 영향을 적용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들의 가격을 100% 이상 인상하기도 했다.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핵심 성장 테마(방산, 저가 소비, 중국 테크 등)를 비롯해 수출 의존도가 낮은 인도 시장 중심의 접근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그림 1. Phase 1 합의: 중국의 구매량은 목표치를 미달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중국 상호간의 관세율 추이



자료: PII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